

특별선교주일

세계평화주일

떠오르는 정의: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 추구하기



본 설교 자료는 목회자 및 지도자들의 세계평화주일 예배 준비를 돕기 위해, 사무엘하 23:-34를 토대로, “떠오르는 정의: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 추구하기”라는 주제로 작성되었습니다. 아래의 순서들 및 자료 꾸러미에 동봉된 자료들을 각 교회 및 예배의 상황에 맞게 바꾸어 사용하세요.

아 이들이 평화의 길을 따라 걸으며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책들을 발견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대화가 시작되고, 어린 마음에 연민과 이해의 씨앗이 심어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그 교훈을 실천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또 그 영향이 외부로 파급되어 삶에 영향을 미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오늘, 세계평화주일을 맞아 우리는 교단에 속한 다른 연합감리교회들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의 운동에 동참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세계평화주일 헌금은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았던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나눴던 일들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주 뉴베를린에 있는 우리주님의연합감리교회는 연합감리교회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교회 경내에 ‘세대 간 평화와 정의의 스토리텔링 길’을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길은 목상을 위한 물리적 공간일 뿐만 아니라 교육과 실천을 위한 자원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길은 정의와 평화,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연합감리교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헌금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곳은 미국 뿐만이 아닙니다. 총회사회부의 지원금은 전 세계 교회와 지역사회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콩고감독구의 키부연회 지역에 위치한 잉글리즈 로컬 카풀로 (Englisse Local Kafulo)라는 단체는 “아동, 소녀, 여성 성적 학대 및 착취 중단”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취약 계층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성적 학대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동시에 예방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 왕은 그의 마지막 말을 통해 정의와 공의에 뿌리를 둔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정의와 공의에 뿌리를 둔 리더십에 대한 그의 메시지는 단순히 개인적인 유언을 넘어 하나님의 성품과 인류와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은 성경 전반에 걸쳐 정의, 자비, 의로움에 대한 헌신을 강조합니다.

이 언약은 단순한 역사적 계약이 아니라 신실함과 상호 책임을 특징으로 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지속적인 관계를 뜻합니다. 다윗이 말한 “아침 햇빛”이라는 이미지는 우리에게 정의와 평화로 시작되는 새로운 새벽에 대한 희망과 예언자적 비전을 제시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이 아침 햇빛을 구현하여 불의와 억압의 그림자를 밝게 비춥니다. 변화시키는 힘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우리의 행동은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새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평화와 정의를 위한 우리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통치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비롯한 오늘날의 폭력을 목격하면서, 우리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향한 여정이 도전과 좌절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확고한 토대 위에서 정의를 추구하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지탱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도록 부르받았습니다.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